누구나 일 년이 365일은 아니다

(시편 90:1~17)

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12.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누구나 일 년이 365일은 아니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누구나 일 년이 365일은 아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50편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심코 일 년을 365일이라고 여기며 살지만 누구에게나 365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12절의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말씀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생각하여 '생애의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자, 인생의 유한함과 덧없음을 기억하며 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앞부분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 날 계수함에 대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살아온 하루하루를 세어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온 날을 세어보기 위해서 지혜까지 필요하고 누가 가르쳐줘야 아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달력을 보면 날짜는 나오고 한 주는 7일이고 한 달은 30일이고 일 년은 365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 날짜를 세는 것을 지혜라고 하니 당연히 의문과 오해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루가 무척 중요합니다.
일 년이든 내 평생의 날수이든 그것을 세는 기본 단위는 하루입니다. 이 하루가 정확히 무엇이냐를 알 때에 평생을 계수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알고 배우는 데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하루 살기를 365번 반복해서 일 년이 되고, 그것을 다시 60~70번 쯤 반복해서 지금의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하루는 그렇게 쉽게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하루에는 구체

적인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하루를 정확하게 계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새로 시작한 새해를 365일 동안 살아갈 줄로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그 날수는 달라집니다. 달력상에서 365라는 숫자가 지나간다고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365번의 하루를 살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루의 정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365일을 살았어도 단 하루를 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 365일 중에서 며칠이나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 하루의 조건을 가르쳐줍니다. 본문의 저자인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첫 번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벌써 하루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루에 대한 간구는 오늘 시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창조의 육일 간의 과정이 첫째 날, 둘째 날을 세며 하루하루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루에는 꽉 찬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루마다 특정한 결실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라는 말씀이 다섯 번 반복되며 진행되는데, 이 첫째 날이 하루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빛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은 육지와 바다를 만드셨고 땅에는 풀과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종 생물과 짐승을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활동을 하시면서 하루라는 단위로 나누신 이유는 하루의 정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는 하나님께서 활동을 위해 정해놓으신 시간적 단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활동을 하실 때에 모든 작업을 한 번에 하신 것이 아니라 하루라는 단위를 정해놓고 끊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해 놓으신 활동량이 들어있는 시간 단위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판단하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아담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인격과 아담의 인격이 연합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판단을 아담의 판단력 속에 넣어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아담의 생각하는 능력 속에 넣어주시고, 당신의 활동을 아담의 활동력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이 하루 동안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 하루는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진행 된 하루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나님의 만족하심이 따라붙었습니다.
정리해봅니다. 하루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정 분량의 활동이 있어야 하고, 그것이 완수될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하루입니다.

이 하루의 정의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10절을 보면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70~80년을 살았으면 며칠을 산 것일까요? 365에 80을 곱하면 3만 일 가까운 날짜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이 숫자는 하루의 숫자가 아닌 하나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슬픔과 수고의 덩어리일 뿐 완수된 하루의 숫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이 슬픔과 수고의 덩어리를 키우는 것일 뿐 참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에게 하루를 계산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하루의 정확한 의미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60년을 살아온 결과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픔의 덩어리만 남았을 뿐입니다. 뭉뚱그려진 하나의 덩어리의 삶이 말씀대로 신속히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덧없고 유한하고 하찮은 것뿐이라는 의미입니다. 70~80년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루 분량의 활동이 없다면 그것은 단 하루조차 산 것이 아닙니다.
밀가루가 음식이 되기 위해서는 물로 반죽을 해야만 빵을 만들든 도너츠를 만들든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밀가루에 물을 붓지 않고 그냥 가루만 주무른다면 백년을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365일은 밀가루와 같습니다. 이 365일을 계수하는 지혜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곧 밀가루를 물 없이 주무르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루 분량의 계획을 무시하며 그저 뭉갤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서 하루가 실제로 성립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루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14~15절에서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나오고 16~17절에서 두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는 앞으로 364일이 있습니다. 이 날들을 얼마나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인 14~15절을 보면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14절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하루를 살아가는 조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이제껏 단 하루를 제대로 살지 못한 채 걱정과 슬픔의 덩어리로 살

아왔음이 아깝고 후회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게 될 때에 평생이 즐겁고 기뻐집니다. 이것이 하루를 채우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아침은 만족의 시간은 아닙니다. 아침은 결심의 시간이고 기대와 희망의 시간입니다. 하루 동안 기대하고 희망하는 것들을 열심히 추구함으로서 저녁에 만족한 결실을 얻고 싶어 합니다. 새해 첫 날을 희망찬 새해, 희망찬 아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루가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만족함으로 시작한 하루로 인해 평생이 즐겁고 기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여 직장에도 가고 학교에도 가고 시장에서 장사도 하고 가정에서 가사일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루의 두 번째 조건은 16~17절에 나타납니다. 먼저 16절을 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여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리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 때와 같은 완전한 하루로 채워진다는 것이지요.
창조 때의 하루의 조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정 분량의 충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한다는 것은 곧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은 사람이나 일이나 과제를 할 때에도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배부른 사람에게 다른 음식을 주어도 먹을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대상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분량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이럴 때에 하루는 성립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내가 움직여야 할 부분이 있고,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손 댈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활동하실 것인데 그렇다면 내가 움직여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17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의 능력과 생각의 능력과 육신의 활동능력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활동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남은 날을 계수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

다. 우리 생애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로움은 그야말로 하루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부터 만족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활동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 때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루 분량의 활동이 일어났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되는 하루를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루 분량의 활동은 반드시 세상에서 높게 평가되는 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밥을 하거나 설거지를 해도 수위 일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만족했느냐는 것입니다. 아침에 하나님으로 만족했다면 수위 일을 하더라도 꽉 찬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어도 아침에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 임기 5년을 마친다하여도 그것은 걱정과 슬픔의 덩어리일 뿐입니다. 진정한 하루를 산 것은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루를 살지 못했던 이유가 1~2절에서 나타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란 곧 우리 마음이 항상 머무를 자리입니다. 이는 곧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을 붙잡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에 가서 머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활동이 삶속에서 창조 때처럼 내용과 결실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3~9절까지는 이렇게 참 하루를 계수할 수 없는 사람들이 겪는 일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 주의 목전에는 천 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대로 하루의 내용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의 삶은 티끌로 돌아가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있은 적이 있었다는 기억만 있을 뿐입니다.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대통령을 했든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 보시기에 먼지 같은 삶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루를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기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라

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가서 머물지 않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믿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활동은 나타날 수 없고 하루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일로 인하여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하루는 걱정과 근심과 슬픔덩어리를 늘려나가는 행동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40세, 50세, 60세, 70세입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70년을 살아왔어도 단 하루를 살지 못했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하루를 채우기 위해서는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내야만 합니다.
하늘로 올라간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되고,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하루 분량으로 계획하신대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통해 마음을 하늘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기쁨을 찾으려는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동안에만 우리의 마음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 십자가를 24시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머물 때에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활동의 분량대로 채워지고 내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부터 시작되는 364일을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서 하나님으로 꽉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마음이 죽었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하루하루를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즐거움이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거처를 둠으로서 아침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므로 삶 전체를 하나님이 손수 살아가시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